

여수, 이번엔 '윤슬'로 빛난다

여섯번째 웹드라마 시사회
국·내외 웹페스트 잇단 출품
여수 관광지 알림이 일등공신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 '윤슬' 포스터

“이번엔 윤슬로 빛난다.”
여수시가 여수 관광 홍보를 위해 매년 웹드라마 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전남문화재단에서 여섯 번째 웹드라마 ‘윤슬’ 시사회를 연다.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추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백제로 명명한 신라 진골 출신 ‘해오랑’과 백제 귀족 가문의 딸 ‘별녀’, 이를 질투하는 백제 무장 ‘관우’, 3명의 주인공들이 환생을 거듭하며 삼각관계를 벌이는 이야기다.
‘윤슬’은 45분 분량으로 총 5화로 구성되어 있다. 1화는 ‘인연의 굴레’로 과거 해오랑이 별녀에게 청혼하며 준 옥가락지를 현재의 은별(별녀)이 우연히 구입하게 되면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인연의 굴레가 시작된다.
2화 ‘천년의 만남’, 3화 ‘윤슬의 신령’, 4화 ‘끝없는 사랑’, 5화 ‘오대양의 보석’을 통해 두 주인공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관광지를 만날 수 있다.
시는 시사회 이후 유튜브 및 여수관광 SNS ‘힐링 여수야’를 통해 웹드라마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와 이모티콘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15년부터 매년 웹드라마를 제작·발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여수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특히 2019년 ‘동백’이 스페인 발바오 웹페스트에서 황금늑대상을 수상했고, 2020년 ‘호접몽’은 아시아웹어워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여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여수시 관계자는 “웹드라마는 뉴미디어시대에 여수의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명소를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적합한 최적의 콘텐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웹드라마 제작을 통해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윤슬’은 제7회 서울웹페스트(Kwebfest)에 출품해 27개국 300편 중 180편(국내 40편, 국외 140편)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시상식에서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 홍콩 인터내셔널 숏 필름 페스티벌, 미국 로스앤젤레스 씨네페스트에도 출품을 마쳤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kwangju.co.kr

코로나19로 뜨고 있는 비대면 관광지인 금오도 비렁길, 여수섬섬길, 가사리 갈대밭, 여자만 갯노을길, 낭도 장사금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여수의

구례군 반달가슴곰 주민해설사 22명 탄생

4개월 해설사 양성 교육 수료
“반달가슴곰과 평화 공존 노력”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도 속도



반달가슴곰 주민해설사 양성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반달가슴곰 생츄어리(sanctuary·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구례군에서 반달가슴곰 주민해설사가 나왔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해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달가슴곰주민해설사 양성 교육에서 22명이 최종 수료해 해설사로 활동한다.
이들은 환경, 야생동물, 수의, 국립공원연구원의 곰보원팀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2개월에 걸친 기본교육과 같은 기간의 심화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에는 주부와 퇴직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참여해 반달가슴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남자10명 여자 12명의 해설사들은 50, 60대가 18명으로 주를 이뤘으며 30대도 1명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최고령으로 해설사가 된 김현주(여·68) 씨는 “우리군의 상징인 반달가슴곰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공부와 환경에 관한 많은 지식과 깨달음을 얻었다”며 “앞으로 더 깊은 공부와 연습을 통해 반달가슴곰을 알리고, 보전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을 주관한 (사)반달곰친구들의 윤주옥 이

사는 “반달가슴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보전 활동도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구례가 반달가슴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표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제329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국립공원연구원이 2004년부터 종 복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수오산 등지에 74개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81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입해 사육중인 반달가슴곰은 처음 500여 마리였으나 한때 1400여마리 까지 늘어났다. 현재는 400여마리가 일반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사육곰들을 수용하기 위해 구례군에 9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곰 생츄어리를 만든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동참해 주세요

고흥군 할인가맹점 연중 모집

고흥군은 자원봉사에 뜻을 함께 하는 희망업체(유형업소 제외)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할인가맹점’을 연중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군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년간 봉사시간 15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발급)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할인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흥군자

원봉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할인율(5~20%)에 대해 별도 협약으로 정하면 된다.
현재 군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우주발사전망대 등 8개 공공시설 이용료 50%감면과 31개 할인가맹점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관내 103명의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적지 않은 동기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현판 게시로 업체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언론매체 홍보 등으로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은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최근 2년 150시간 이상인 봉사자가 증명사진을 첨부해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조성 주민설명회

해상보도교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짙어진 도착점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광양 배알도 근린공원이 새롭게 태어난다.
광양시는 최근 태인동 주민과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알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주변 여건과 대상지 분석, 개발 목표, 방향 설정, 기본 구상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부터 이용까지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망덕포구와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확장할 방침이다.

배알도 공장을 중심으로 거울연못, 모래놀이터, 그린루프 등 다이나믹한 공간을 조성하고, 맥문동 등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해 주변 생태와 어우러진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순기 광양시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대상지는 망덕포구 관광명소와 사업과 섬진강갯길 복원 및 수상레저 조성사업의 연계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며 “차별화되고 낭만적인 근린공원 조성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거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학교 공간혁신 교육경비 지원사업

순천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공간혁신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노후되고 불편한 학교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고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5개교를 선정해 총 5억2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학교들은 노후되고 불편한 학교 공간 때문에 스터디카페와 같은 학교 밖 학습공간을 찾던 학생들이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가요’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순천시는 지난해 ‘카페형 독서실 조성’과 ‘군형 발전을 위한 학교 혁신 프로젝트’사업의 큰 효용에 힘입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현장심사에 참여한 각 학교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아이디어 참여는 물론 지역민이 함께하며 학교 교육의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혁신교육의 도약을 통한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 총 64억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섬진강 수해예방 국고 450억원 요청

지난해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곡성군이 수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 4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곡성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섬진강 관련 2가지 사업에 예산 45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곡성군은 우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수안

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섬진강변 도로 등이 침수돼 마을 등이 고립될 경우 교량을 통해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호곡교 연결교량 가설공사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www.yhbeco.co.kr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